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. 4.(목) 11:00 < 1.4.(목) 석간 > 배포 2024. 1. 3.(수)

[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]

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327.2억 달러, 역대 최대 실적 달성

- 신고 327.2억 달러(전년 대비 +7.5%), 도착 187.9억 달러(+3.4%) 기록

'2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.5% 증가한 327.2억 달러를 기록하여,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.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.4% 증가한 187.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.

* 연간 신고금액(억 달러) : ('20) 207.5 → ('21) 295.1 → ('22) 304.5 → ('23) 327.2

【업종별】 제조업은 119.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.5% 소폭 감소하였고,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(PIF)의 투자, 대형 금융·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.3% 증가한 177.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,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·전자(40.6억 달러, +17.7%),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하는 운송용 기계(17.6억 달러, +168.0%) 등의 업종이, 서비스업에서는 금융·보험(97.7억 달러, +108.5%) 등의 업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.

【국가별】 유럽연합(EU)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.0% 감소한 62.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'23년 중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(11.8억 달러, +447.8%)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. 특히, 유럽연합(EU)에 영국(36.0억불, +520.5%)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는 98.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.6% 증가하였다. 미국,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도 각각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61.3억 달러(△29.4%), 13.0억 달러(△14.7%)를 기록하였다. 특히, 미국의 경우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세율이 낮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합작 법인의 소재국으로 신고되어 신고 금액이 다소 낮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경제효과가 큰 제조업 또는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.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31.2억 달러(+65.6%)를 기록하였으며, 코로나19 등으로 큰 감소폭을 겪은 2022년(△35.8%)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. 이 외의 국가는 159.5억 달러(+46.9%)를 기록하였다.

* 중화권 신고금액(억 달러) : ('20) 31.4 → ('21) 29.4 → ('22) 18.9 → ('23) 31.2

【유형별】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5.5% 증가한 235.4억 달러를, M&A형 투자는 12.9% 증가한 91.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그린필드 투자는 2022년의 223.1억 달러를 경신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.

【평가】 '23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된 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, 국가 첨단산업육성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. 6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시 유치한 외국인 투자('23년 총 54.3억 달러)도 이번 실적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 이들 투자는 국내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국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【별 첨】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엄재영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전종형 (044-203-408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'23년 외국인직접투자 상세 동향**

Ⅰ.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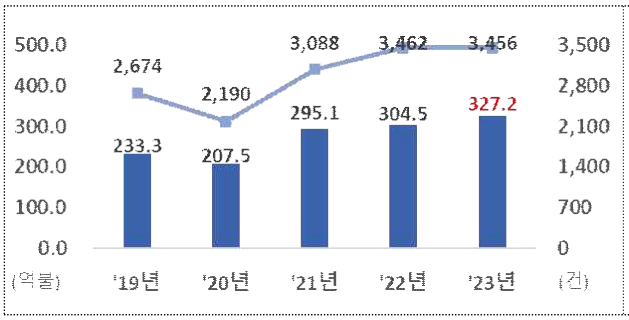
□ (실적) 연간(1~12월 합산) **역대 최대 신고·도착금액** 달성

○ (금액) **신고 327.2억불**(+7.5%), **도착 187.9억불**(+3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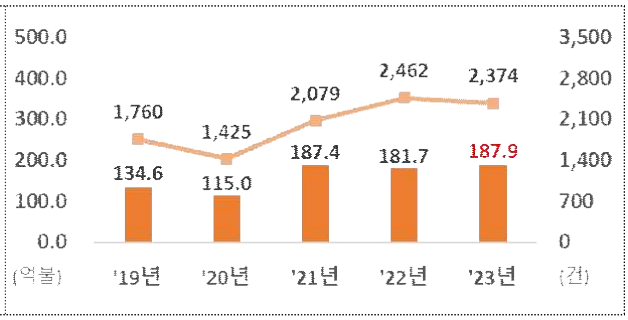
* 4분기(10~12월)만의 실적은 신고 87.7억불, 도착 47.0억불

○ (건수) **신고 3,456건**(△0.2%), **도착 2,374건**(△3.7%)

< 신고금액, 건수 >



< 도착금액, 건수 >



□ (평가)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위축*에도 불구, **역대 최대 실적 및 2년 연속 300억 달러대의 신고금액**을 달성

* '23년 상반기 글로벌 FDI는 7,2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% 감소(OECD)

○ **국내 매출·고용·수출**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**국내 경제회복 기여** 예상

* '23년 매출 538조 원, 고용 85.3만 명, 수출 1,207억 달러(㈜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분석)

○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등 **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 원 규모 국내기업 투자**가 추진되면서, 이와 관련된 **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외투 견인**

* 例) A社·B社 반도체 제조용 감광액 생산공장 및 R&D센터, C社 양극재 생산공장, D社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등

○ **공장·사업장을 직접 경영**하기 위한 **그린필드 투자**(235.4억 달러, +5.5%)**가 역대 최대 실적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기술이전** 등 **긍정적 효과 예상**

○ **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***과 **투자 환경 개선 의지,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** 등이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

* 정상 순방시 '23년 총 54.3억 달러 신고금액 유치 성과(연간 신고금액 16.6% 차지), 이들 프로젝트 중 6대 첨단산업 분야 22.5억 달러(41.4% 비중)

Ⅱ. 세부 동향(신고기준, 업종별 · 국가별 · 유형별 · 자금별 · 지역별)

1. 업종별

□ (금액) **제조업**(119.2억불, △4.5%, 비중 36.4%) **소폭 감소**, **서비스업**(177.9억불, +7.3%, 비중 54.4%)·**기타업종**(30.1억불, +116.8%, 비중 9.2%) **증가**

* 기타업종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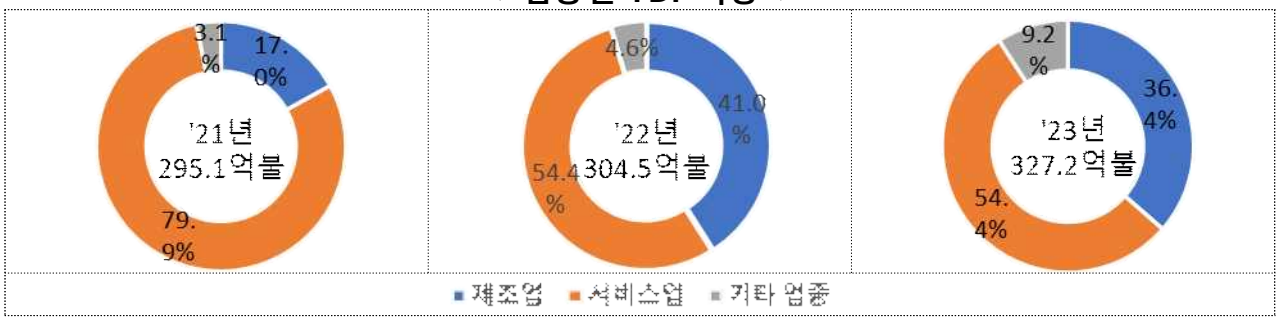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업종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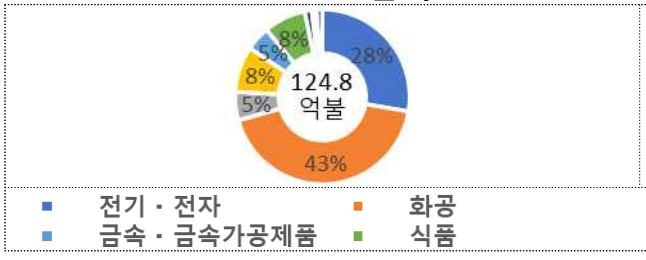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 FDI 비중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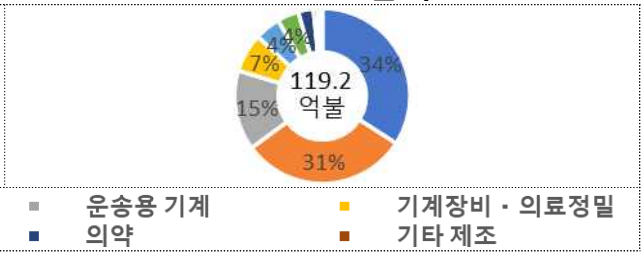
○ (제조업) **119.2억불**(전년比 △4.5%*, 비중 36.4%)

* '22년 대형투자(제조업·그린필드 31.1억불)에 의한 기저효과

< '22년 신고금액 >



< '23년 신고금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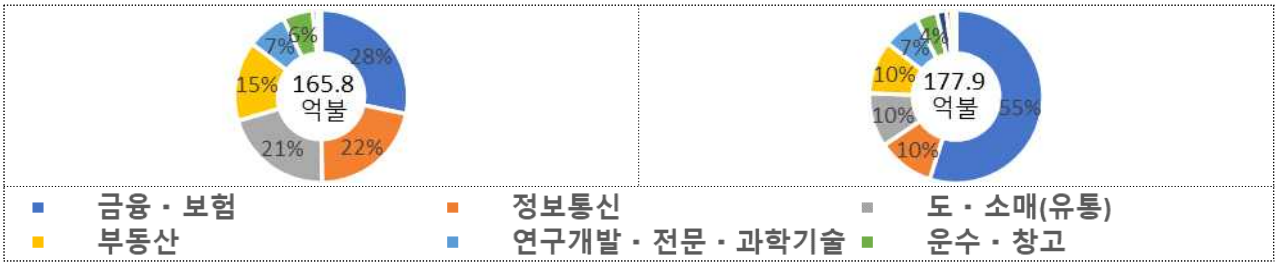


- (증가업종) **전기·전자**(40.6억불, +17.7%), **운송용기계**(17.6억불, +167.8%), **의약**(3.3억불, +105.4%) 등

- (감소업종) **화공**(36.7억불, △31.6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8.6억불, △19.0%), **금속·금속가공제품**(5.6억불, △0.8%) 등

○ (서비스업) 177.9억불(전년比 +7.3%, 비중 54.4%)

< '22년 신고금액 >



< '23년 신고금액 >

- (증가업종) 금융·보험(97.7억불, +108.5%), 연구개발·전문과학기술(12.4억불, +0.3%) 등
- (감소업종) 정보통신(18.8억불, △47.3%), 도·소매(18.0억불, △47.4%), 부동산(17.7억불, △28.6%), 운수·창고(6.9억불, △26.1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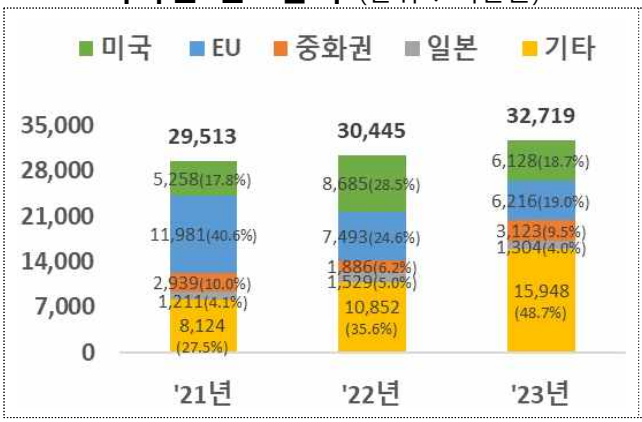
□ (건수) 제조업(418건, +4.0%), 기타업종(158건, +9.3%) 증가, 서비스업(2,862건, △1.3%)은 전년 대비 감소

2. 국가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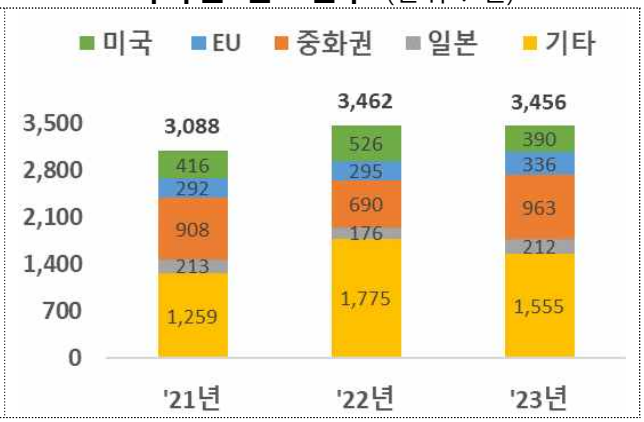
* 중화권 : 중국, 홍콩, 대만

□ (금액) 미국(61.3억불, △29.4%, 비중 18.7%), EU(62.2억불, △17.0%, 비중 19.0%), 일본(13.0억불, △14.7%, 비중 4.0%), 는 감소, 중화권(31.2억불, +65.6%, 비중 9.5%), 기타 국가(159.5억불, +46.9%, 비중 48.7%)는 증가

< 국가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국가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미국) 61.3억불(전년比 △29.4%*, 비중 18.7%)

* 전년도 대형투자(제조업 · M&A 18억불, 서비스 · 그린필드 7억불)에 의한 기저효과

* 미국 기업 중 타국 투자자로 신고 : 호주(제조업 · 그린필드 5.6억불), 케이만군도(제조업 · 그린필드 3.7억불) 등

- (업종별) 제조업(34.7억불, +1.1%) 증가, 서비스업(26.6억불, △48.9%) 감소
- (유형별) 그린필드(58.4억불, △9.4%), M&A(2.9억불, △87.2%) 모두 감소

○ **(EU) 62.2불**(전년比 △17.0%*, 비중 19.0%)

* 전년도 대형투자(제조업·그린필드 31.1억불, 서비스업·그린필드 5.4억불)에 의한 기저효과

※ 영국 : 36.0억불(+520.5%), EU+영국 : 98.2억불(+21.6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7.9억불, △56.3%) **감소, 서비스업**(37.6억불, +55.2%) **증가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34.0억불, △41.4%) **감소, M&A**(28.2억불, +66.0%) **증가**

○ **(중화권) 31.2억불**(전년比 +65.6%*, 비중 9.5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7.2억불, +74.1%), **서비스업**(14.1억불, +75.9%) **모두 증가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28.7억불, +61.0%), **M&A**(2.5억불, +145.6%) **모두 증가**

○ **(일본) 13.0억불**(전년比 △14.7%*, 비중 4.0%)

* 전년도 대형투자(서비스업·M&A 2.5억불)에 의한 기저효과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6.4억불, △7.4%), **서비스업**(6.6억불, △21.3%) **모두 감소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11.8억불, △0.9%), **M&A**(1.3억불, △62.4%) **모두 감소**

○ **(기타 국가) 159.5억불**(전년比 +46.9%, 비중 48.7%)

* UAE 4.9억불(+143.5%), 사우디아라비아 4.6억불(+138,338.4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43.1억불, +31.0%), **서비스업**(93.1억불, +27.2%) **모두 증가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102.5억불, +44.3%), **M&A**(56.9억불, +51.9%) **모두 증가**

□ **(건수) 중화권**(963건, +39.6%), **EU**(336건, +13.9%), **일본**(212건, +20.5%)은 **증가**, **미국**(390건, △10.2%), **기타 국가**(1,555건, △12.4%)는 **감소**

3. 유형별

□ **(금액) 그린필드**(235.4억불, +5.5%, 비중 71.9%), **M&A**(91.8억불, +12.9%, 비중 28.1%) **모두 증가**

< 유형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유형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그린필드) 235.4억불**(전년比 +5.5%)로, **제조업**(103.5억불, +19.0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103.6억불, △15.5%) **감소**

○ **(M&A) 91.8억불**(전년比 +12.9%)로, **제조업**(15.6억불, △58.7%) **감소**, **서비스업**(74.4억불, +71.8%) **증가**

□ **(건수) 그린필드**(3,168건, △0.5%) **감소**, **M&A**(288건, +3.2%) **증가**

4. 자금별

□ **(금액) 신규투자**(143.9억불, +17.4%, 비중 44.0%) **증가**, **증액투자**(169.0억불, △0.1%, 비중 51.6%) **'22년 수준 유지**

* 신규투자 :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
증액투자 :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,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
장기차관 :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

< 자금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자금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신규투자) 143.9억불**(전년比 +17.4%)로 **제조업**(53.2억불, △5.1%) **소폭 감소**, **서비스업**(82.3억불, +29.6%) **증가**

○ **(증액투자) 169.0억불**(전년比 △0.1%)로 **제조업**(59.2억불, △3.1%), **서비스업**(88.1억불, △9.4%) **모두 감소**

□ **(건수) 신규투자**(2,194건, +1.9%) **증가**, **증액투자**(1,161건, △1.6%) **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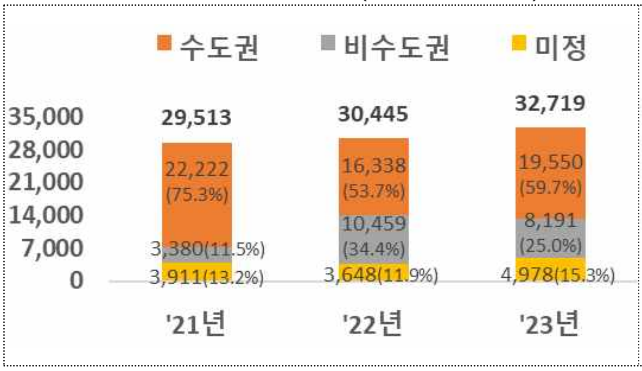
5. 지역별

※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
미정(50.1억불) :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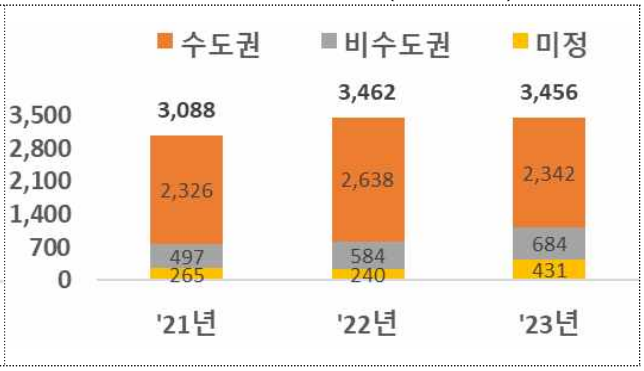
□ **(금액) 수도권**(195.5억불, +19.7%, 비중 59.7%) **증가, 비수도권**(81.9억불, △21.7%*, 비중 25.0%) **감소**

* '22년 대형투자(비수도권, 제조업·그린필드 31.1억불)에 의한 기저효과

< 지역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지역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수도권) 195.5억불**(전년比 +19.7%), **제조업**(44.6억불, +54.1%), **서비스업**(142.0억불, +9.6%) **모두 증가**

* 서울(143.1억불, +33.4%), 인천(9.6억불, △5.9%), 경기(42.9억불, △6.7%)

○ **(비수도권) 81.9억불**(전년比 △21.7%)로 **제조업**(53.6억불, △33.5%), **서비스업**(13.5억불, △18.3%) **모두 감소**

* 증가 시·도 : 경북(15.52억불, +391.3%), 경남(11.24억불, +297.3%), 전남(8.59억불, +28.3%), 부산(6.41억불, +25.4%), 광주(3.79억불, +531.8%), 대전(3.17억불, +1,065.6%), 세종(1.38억불, +66.8%), 대구(1.31억불, +27.3%), 강원(0.59억불, +250.1%)

* 감소 시·도 : 울산(12.42억불, △62.7%), 전북(9.1억불, △54.7%), 충남(5.48억불, △14.5%), 충북(2.34억불, △82.1%), 제주(0.51억불, △95.3%)

□ **(건수) 수도권**(2,342건, △11.6%) **감소, 비수도권**(684건, +17.1%) **증가**

Ⅲ. '23년 주요 외투 주요 사례(3억불 이상 신고금액 상위 24개건)

구분	투자기업	금 액 (억불)	업종	유형	주요 내용
계		**119.8**		그린필드 : 62.5억불 M&A : 57.3억불	
1	○○社	12.0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2	○○社	10.5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보안기업 지분인수
3	○○社	9.4	제조 (운송용기계)	그린필드	생산시설 개선
4	○○社	8.0	제조 (화공)	M&A	산업용특수가스기업 지분인수
5	○○社	7.6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6	○○社	6.2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폴리이미드 필름 업체 인수
7	○○社	5.6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8	○○社	5.0	서비스 (도·소매)	그린필드	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
9	○○社	4.2	제조 (화공)	그린필드	암모니아수소 터미널, 크래킹시설
10	○○社	4.0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11	○○社	4.0	제조 (금속)	그린필드	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제휴
12	○○社	3.8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수소 사업 확장·고도화
13	○○社	3.7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반도체 패키징 시설
14	○○社	3.6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이차전지 생산공장 확장
15	○○社	3.6	서비스 (정보통신)	그린필드	콘텐츠 제작·유통
16	○○社	3.5	전기수도	그린필드	해상풍력 발전단지
17	○○社	3.4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PEF(사모펀드)
18	○○社	3.4	제조 (화공)	그린필드	암모니아수소 터미널, 크래킹시설
19	○○社	3.1	제조 (운송용 기계)	그린필드	조선해양기업 지분인수
20	○○社	3.1	서비스 (금융·보험)	그린필드	전자상거래기업 인수
21	○○社	3.1	서비스 (부동산)	그린필드	부동산 투자
22	○○社	3.0	제조 (기계장비)	그린필드	풍력터빈 핵심부품 생산시설
23	○○社	3.0	제조 (식품)	그린필드	감미료 생산시설
24	○○社	3.0	서비스 (금융·보험)	그린필드	모기업의 한국 자회사 지분 확대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(사)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
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
○ 본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4년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